



##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 하고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캔디아  
울면 바보다 캔디 캔디아

- 들장미 소녀 캔디 주제곡

내가 초,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그림 페나 그리는 아이들은 순정만화에 나오는 캔디, 안소니, 테리우스 같은 캐릭터를 그려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었다. 그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던 나는 평소애 좀 가깝게 지낼 걸 후회하면서 캔디 그림을 획득한 친구를 부럽게 바라보곤 했었다.

그 시대에 캔디를 보고 자란 우리 시대 여성들은 마치 고이 간직한 동심처럼 나도 모르게 캔디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바로 이 캔디라는 캐릭터는 누구인가? 캔디는 순정만화 캔디 캔디의 주인공으로 밝고 순수한 성격을 가진 소녀이다. 고아로 자라며 온갖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만 항상 특유의 낙천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사람을 돕는데 물불 가리지 않으며 매우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몇 명의 악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캔디를 보고 자란 소녀들이 성인이 되자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 드라마들은 하나같이 캔디형 여주인공들의 전성기였다. 그녀들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정의로우며 모든 남자들의 관심을 받지만 결국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지고 능력 있는 백마 탄 왕자를 만나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전개이다. 물론 그녀들은 매우 아름답다. 드라마 초반에 못생김을 가장하기 위해 안경을 씌우거나 뽀글 머리로 등장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미모를 드러내게 된다는 설정으로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는 희망을 안겨주는 듯했다.

얕튼 이런 전형적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자라서인가 마치 세뇌되었듯 내 안 어딘가에도 캔디 증후군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고 슬픔을 참아내는 것이 멋진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망처럼 느껴져 나도 오랜 세월 외로워도 슬퍼도 겉으로 티를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은 어느 한순간에 의식적으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절대 울지 않아야지' 하고 굳은 다짐을 하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하는 것이다. 아마도 자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슬퍼 눈물을 흘렸을 때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캔디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보니 외롭고 슬픈데 안 울고 참아봤자 나만 아프고 서러울 뿐 "너 참 대단하다" 며 알아주고 득이 될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캔디처럼 모든 남자들이 나만 바라보며 사랑해 주는 일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슬플 때 슬프다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마

음을 내비치는 사람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눈부시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분명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다. 하지만 슬픔을 회피하며 억지로 눈물을 삼킨 채 거짓 웃음으로 평생을 버틴다면 언젠가는 엄청난 부작용을 피해 가기 힘들 것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캔디처럼 애쓰며 살 필요 없다고 말해주며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사랑하는 딸아, 외롭고 슬프면 울어도 괜찮다. 살다 보면 누구나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슬픔은 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느끼고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슬픔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어야 해. 나의 슬픔의 근원을 찾아보고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면서 감정을 표출하고 흘려보내면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슬픔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해. 엄마도 꽤 오랫동안 내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을 견디는 동안에도 너 자신을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줘. 슬픔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면서 더 단단해지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너를 응원한다.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 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